북한의 무역 조직 개편과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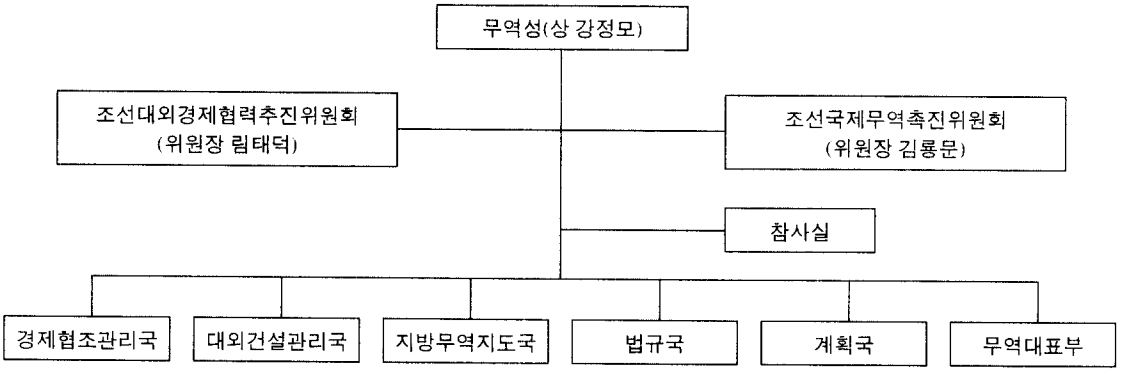
권경복 / 연합뉴스 기자

침체 경향을 보여온 북한 대외 무역 조직에 개편의 바람이 일고 있다. 이는 나진·선봉경제무역지대에 대한 외국 투자 열기가 식어가고 1998년도 북한의 대외 교역량이 14억 달러로 1997년에 비해 34% 가량 감소되면서 더욱이 역력하다.

북한이 지난해 9월 5일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10기 1차회의를 통해 권력 구조 개편을 단행하면서 꾸준히 대외 무역 관련 조직을 정비해온 사실이 그것이다. 즉, 정무원을 내각체제로 바꾸면서 정무원 대외경제위원회(위원장 이성대)를 폐지하고 내각에 무역성(상 강정모)을 신설했다. 무역성에는 무역 업무는 물론 세관 업무, 외국 회사와의 합영 사업 및 운송, 대남 교역 등을 담당하는 기구들이 편성되어 있고, 조선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위원장 림태덕)와 조선국제무역촉진위원회(위원장 김룡문) 등 반관반민 성격의 기구들을 거느리고 있다. 특히, 조선대외경제협력추진위는 외국의 자본과 기술의 유치 및 개방 특구로 지정된 나진·선봉지대의 개발을 주로 관장하는 기구이며, 조선국제무역촉진위원회는 산하에 여러가지 무역 회사를 둔 무역 업무 전담 기구이지만 최근 들어서는 외자 유치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북한은 또한 유사한 조직을 통폐합시키고 무역 정책 연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혁의 역점을 두었다. 다시 말해, 종전의 대외건설총국과 남남합작회사를 '대외건설관리국'으로 합병하고 경제합작국과 합영지도국을 묶

〈그림〉 북한 무역성의 조직 구조



어 '경제협조관리국'으로 재편하였다. 또한 무역성 산하에 참사실을 새로 만들어 무역 정책 전반에 관한 연구를 전담케 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외에도 북한은 상품 수출선이 없는 회사의 통폐합과 경영 구조의 단일화·전문화 원칙에 의거해 무역 회사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 작업에 착수했다. 각 省을 포함한 정부 기구가 반드시 필요로 하는 일부 무역 회사를 제외한 기타 무역 회사를 모두 무역성 관할 범위에 넣고 현존하는 대외경제협력위 소속 회사도 무역성 소속으로 이관한 것이다.

더욱이 각 도(직할시)는 한 개의 무역 회사만 보유할 수 있게 하고, 그외에는 모두 무역성의 통일적인 관리를 받게 함으로써 무역성의 지위와 권한을 강화시켰다. 여기에 노동당 중앙위원회 소속과 군 관련 무역 회사도 상응하는 정리 조치를 단행, 북한의 전체 무역 회사 수는 1997년경 300여 개에 이르던 것이 올 초에는 100여 개로 전체의 2/3가 감소하는 결과를 낳았다. 그러면서도 북한은 무역 강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해 수정 보충한 「사회주의헌법」 제36조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대외 무역은 국가 또는 사회협동단체가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구헌법에서의 "국가가 하거나 국가의 감독 밑에서 한다"는 규정과 비교해볼 때, 무역 회사 설립을 장려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북한의 무역 기구 가운데 대남 교역 부문은 조선아세아태평양평화위원회(위원장 김용순) 산하 기구로 알려진 민족경제협력연합회가 주도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민족경제협력연합회의 존재는 지난해 6월께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방북 과정에서 공식 확인됐으며, 남한 기업과의 각종 임가공 사업·대북 투자를 망라하고 있다. 민족경제협력연합회는 산하에 광명성총회사와 삼천리총회사 등 굵직굵직한 기업들을 거느리고 있다. 전자가 피복 등 경공업 분야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데 비해, 후자는 대우의 남포공단 사업을 비롯해 투자 사업을 전담하고 있다. 민족경제협력연합회는 현재 중국에 두 곳의 대표부도 운영 중인데, 베이징(北京, 대표 리치훈)과 단둥(丹東, 대표 전성근)에 설치돼 있다.

북한은 또 대외경제위원회가 존재할 당시 김정우, 리성록, 조원명, 김추성, 최봉식, 최봉수, 한향철, 김진석, 김동명, 김문성, 김봉익, 김룡문 등 12 명 정도이던 부위원장을 내각 무역성에서는 6 명의 부상으로 줄이는 획기적인 구조 조정을 단행했다. 구본태, 구성복, 김동명, 김룡문, 김봉익, 림태덕 등 현재 6 명의 부상 가운데, 특히 김동명 부상을 제외하고는 모두 50세에서 60세 사이로, 북한에서는 비교적 젊은 관료들로 하여금 무역 실무를 담당케 한 것이다. 복잡한 결정·집행 과정을 통해 비효율적인 구조로 일관했던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북한측 표현대로 '젊은 일꾼들'이 슬림화된 조직에서 업무의 효율화를 지향하는 개혁 작업으로 평가되는, 가장 중요한 대목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북한의 무역 부문을 이끌고 있는 주요 인물들을 분석하는 것은 향후 북한의 무역 정책 방향도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 하겠다.

무역상 - 강정모(姜正模)

북한 대외 무역의 실질적 책임자인 강정모 무역상은 우리의 장관급으로 1934년 강원도 홍천 출신이다. 한국전쟁이 종반을 치닫던 1953년 구동독 로스톡(Rostock)대학에서 유학했으며, 1956년 평양으로 돌아와 평양건설건재대학을 졸업했다.

1960년 평양건설사업소 설계원으로 사회에 발을 내디딘 그는 구동독 유학 경력때문에, 1981년 동독대사관에서 무역참사관을 지내다가 북한이 대외 개방에 눈을 뜨던 시기인 1985년에 북한으로 돌아와 무역부 제1부부장에 발탁됐다. 1991년 4월 재미교포 하워드 김의 주선으로 중국 베이징에서 LG그룹 홍콩지사장과 접촉하는 장면이 목격돼 한동안 대남 경협에도 손을 댄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불러일으킨 장본인이다.

그러나 그는 1993년 독일 주재 북한이권보호사무소(이익대표부) 소장으로 전임돼 6년여 동안 근무한 뒤, 작년 9월 김창룡 외무성 부상에게 자리를 물려주고 평양으로 돌아와 무역상에 올랐다. 동시에 내각 총리로 발탁된 홍성남의 뒤를 이어 재일조총련과의 합작 사업을 총괄하는 조선국제합영총회사 이사장에도 등극했다.

무역상에 오른 뒤에는 주로 리비아, 시리아 등 중동 지역과의 대외 무역 창구를 열기 위해 순방 활동을 적극 벌여나가고 있는데, 건강은 그다지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무역성 부상 - 구본태(具本泰)

구본태 부상은 6 명의 부상 가운데 유일한 재일교포 출신이다. 1946년 일본 지바(千葉)현에서 태어났으며 60년대 초반 북송선을 타고 북한에 들어와 인민경제대학을 졸업했다. 1971년 평양시 사로청(현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지도원으로 출발한 그는 1983년 로얄젤리, 화장품 등 경공업 제품을 수출하는 조선창광무역회사 부사장에 올랐다가 1987년 무역부 부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1992년에 무역부와 대외경제사업부가 통합되면서 대외경제위원회가 만들어졌을 때 다시 부위원장이 된 구본태는 이후 주로 중국과 러시아 · 불가리아 등 옛 사회주의권과의 무역 회복에 힘을 쏟았다. 1995년 국제무역촉진위원회 부위원장을 거쳐 작년 최고인

민회의 제10기 1차회의에서 무역성 부상으로 재신임됐다.

무역성 부상 - 구성복

1941년 강원도 철원에서 출생한 구성복 부상은 19살의 나이에 평양전기공장의 노동자로 사회 활동을 하다가 급부상한 특이한 케이스다. 노동자로 일하면서 1971년 평양국제관계대학을 졸업하고 1981년 금속, 철도, 조선 등 건설 분야의 플랜트 수출입에 주력하는 제1설비수입상사 과장으로 실무를 익혔다.

1998년 전임 위원장인 리성록 국제무역촉진위원장이 자리를 물러난 뒤 위원장 대리 역할을 겸하면서 무역성 부상에 발탁됐다. 그해 11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상공회의소의 초청으로 북한무역사절단을 이끌고 네덜란드를 방문, 광산 설비 등의 수입 문제를 협의했다. 무역성 부상이면서 현재 종합설비상사 사장직도 겸하고 있다.

무역성 부상 - 김동명

1928년 자강도 강계에서 출생한 김동명 부상은 6 명의 부상 가운데 유일하게 70세를 넘긴 고령의 인물이다. 김일성종합대학교 경제학부를 졸업한 그는 지난 60년대부터 무역업무에 발을 들여놓았다. 1962년 이집트 주재 북한대사관 상무관을 시작으로 1969년에는 조선식료품수출입상사 대표를 지냈으며, 1973년부터 1976년까지는 프랑스 주재 무역대표부 차석대표를 역임했다.

1976년 이후 약 20 년간 활동이 공개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던 김동명 부상은 1995년 11월 대외경제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복귀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유엔개발계획(UNDP)을 비롯한 유엔 산하 기구들과의 협력 문제에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다고 평가된다.

77그룹에서 북한 대외 경제의 활로를 모색하기도 했던 김동명 부상은 고령인 탓에 최근 들어 더욱 활동 영역이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현재 무역성 내에서 5 명의 부상들의 자문역을 맡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무역성 부상 - 김룡문

1948년생으로 6 명의 부상 가운데 가장 젊은 김룡문 부상은 현재 조선국제무역촉진위원회 위원장도 겸임하고 있다. 그는 북한의 동남아 무역에서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싱가포르 주재 북한대사관에서 1991년부터 약 7 년간 무역참사를 지냈다. 이 기간 동안 특히 동남아 각국의 나진 · 선봉지대 투자를 유도한 경력을 인정받으면서, 1998년 초부터 대외경제위원회 부위원장에 발탁됐으며 작년 9월부터는 무역성 부상으로 활동하

고 있다.

현재 북한 무역 정책의 실질적 입안자로 평가되고 있는 그는 지난 3월 15일자 재일조총련 기관지인 「조선신보」와의 회견에서, "우리는 나진·선봉경제무역지대에서 외국 기업들과의 합영·합작 사업 그리고 단독 투자를 장려하고 있으며, 또한 기타 특수경제지대를 새로 창설할 것을 전망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해외 각국의 무역대표단이 북한을 방문할 때마다 얼굴을 내미는 그는 최근 북한 무역 회사들의 통폐합을 주도해온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무역성 부상 - 김봉익

김봉익 부상은 림태덕 부상과 더불어 북한 무역성 내에서 대남 교역을 주로 담당해온 대표적 '남한통'으로 각인돼 있다. 1940년에 태어난 그는 1984년 조선중앙은행(총재 정성택) 산하의 무역은행 부장으로 금융분야에서 잔뼈가 굵었다. 이후 5년만인 1989년에 무역은행 총재를 역임한 사실이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80년대 말부터는 남북 교역 분야에서 곰 인형, 바지, 셔츠, 재킷, 스커트, 사파리, 언더웨어, 조끼 등의 위탁가공 업무를 취급해온 삼천리총회사 사장과 남북 교역의 북한측 창구인 조선광명성총회사 총사장을 90년대 중반까지 역임했다.

1995년 6월부터 시작된 제1~3차 남북 베이징 쌀회담의 북한측 대표로 참석했고 1996년 4월에는 대우그룹과 삼천리총회사간의 합작 기업인 '민족산업총회사' 사장에 취임했다. 1998년 대외경제위원회 부위원장에 올랐다가 그해 9월 무역성 부상으로 재신임됐으며, 지난 6월에는 북한경제대표단을 이끌고 리비아, 불가리아, 기니 등을 순방하면서 경제 협력 활동을 펼쳤다. 현재 북한 무역성에서 가장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인물 가운데 한 명이다.

무역성 부상 - 림태덕(林泰德)

1946년 평양 동대원구역에서 태어난 림태덕 부상은 북한에서 엘리트 코스를 거친 신진 무역 관료다. 1975년 김일성종합대학교 경제학부 졸업한 뒤 곧바로 정무원 대외경제사업부 지도원을 거쳐 1981년 대외경제사업부 과장에 올랐다.

1990년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서기장(우리의 사무총장급)을 지내며 나진·선봉경제무역지대 개발 사업에 발을 들여놓은 그는 주로 일본과 대남 교역을 담당해왔다. 1992년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의 평양 방문시 안내를 맡아 주목을 받았다. 같은해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부위원장에 오르면서 두만강개발계획(TRADP) 사업에도 간여했다. 그는 1992년 2월 두만강개발계획관리위원회(PMC)회의 참석차 서울을

방문했으며, 7월 김달현 당시 대외경제위원장의 서울 방문시에도 수행해 우리에게 낯익은 인물이다. 1994년부터는 나진 · 선봉지대 개발을 위해 만들어진 조선경제개발총회사의 총사장에 올라 나진 · 선봉지대 개발을 현장에서 지휘했으며, 이듬해부터는 다시 김봉익 부상과 함께 남북 베이징 쌀회담에 북측 대표로 참석했다.

1996년에는 북한경제대표단장으로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 연차회의에도 얼굴을 내밀었던 그는 1998년 건강 악화로 자리를 물러난 金正宇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대신해 위원장에 올랐다. 1998년 7월에는 북한대표단장으로 일본 돗토리(鳥取)현에서 열린 '제8차북동아세아경제포럼 요나고회의-다국간 협력에 의한 평화와 번영'에 참석, 북한의 무역 정책을 설명하기도 했다.

림태덕 부상은 같은해 9월 최고인민회의 10기 1차회의에서 무역성 부상에 발탁되면서, 강정모 무역상이 수장인 조선국제합영총회사 제10차이사회에서 부이사장으로도 선출됐다. 남북 교역 업자들에 의하면 분석적이고 침착한 성격이라고 한다.

무역성 경제협조관리국장 - 김용술

김용술 경제협조관리국장의 경력에 대해서는 1993년 6월 합영공업총국 부총국장을 역임했다는 사실외에 알려진 게 별로 많지 않다. 그러나 그는 1998년 9월에 개최된 조선국제합영총회사 이사회에서 경제합작국과 합영지도국을 통합해 신설된 경제협조관리국 국장에 발탁됐다. 경제협조관리국은 해외 동포들과의 합영 · 합작 · 가공 무역 등 경제 사업 및 관련 대외 사업을 전담하는 기구다.

즉, 재일조총련과의 합작 사업은 김용술 국장이 주도하고 있다는 반증인 셈이며, 북한 지역에 100여 개로 추산되는 복합 미생물 비료 공장 건설도 그가 실현시켰다는 후문이 있다.

대외경제협력추진위 부위원장 - 김정기(金正岐)

1950년 함북 청진 출신인 김정기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은 림태덕의 경우처럼 엘리트 코스를 거친 정통 무역 관료라 할 수 있다. 1976년 김일성종합대학교 정치경제학부를 졸업한 그는 1980년부터 봉화총국(현 봉화총회사) 과장으로 일하면서 실무 경력을 쌓았다. 봉화총국은 의복 가공 등 임가공 무역을 비롯한 각종 합영 · 합작 사업을 실시하는 무역 회사로, 산하에 7 개의 전문 무역 회사와 금강은행 등을 보유한 북한 내에서는 큰 규모의 그룹이다.

1984년부터 오스트리아 주재 북한대사관 무역참사를 역임한 그는 1989년 잠시 주체경제학연구소 부소장을 거쳐 조선국제무역촉진

위에서 과장과 서기장을 거쳤다. 90년대 중반 또 다시 세계경제 및 남남협력연구소 부소장에 임명된 그는 1995년부터 일본과 대만을 상대로 한 무역 외교에 힘을 쏟게 된다.

1995년 10월 베이징에서 일본과 쌀 20만톤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이듬해 3월에는 대만을 방문하여, 국민당이 소유하고 있는 裕臺公司와 투자 문제를 논의하였다. 또 대외경제협력추진위 부위원장으로 발탁된 뒤 5 개월 정도 지난 1998년 1월에는 조선국제무역촉진위원회 서기장 명함을 달고 일본을 방문해 일본 기업의 대북 투자를 호소하기도 했다.

대북 교역 업자들의 평가에 따르면, 그는 자본주의 경제학 이론에도 식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장점으로 꼽히고 있다.

묘향경제연합회장 - 리성대(李成大)

1998년 9월 이전까지 북한 무역 분야의 수장격인 대외경제위원장을 지냈던 리성대는 현재 묘향경제연합회 회장으로 무역성 부상급의 대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앞선 7월 최고인민회의 제10기대의원 선거 당시 제361호 선거구에서 대의원으로 뽑힌 이후 공식 활동이 전혀 없었으나, 건강이 회복되면서 1999년 1월부터 다시 무역 분야 실세로 복귀한 것이다. 묘향경제연합회는 외국 기업과 호텔, 항만, 공항, 철도 등 인프라의 합영 · 합작을 모색하는 일종의 그룹으로, 리성대는 지난 3월 회장 자격으로 켐핀스키호텔측과 현재 공사가 중단 중인 류경호텔의 인수 · 완공 · 운영 계약을 체결해 관심을 모았다.

1943년 평북 신의주에서 출생한 그는 1965년 국제관계대학을 졸업하고 80년대부터는 식료, 합성수지 등 경공업 제품 관련 상사 관리로 일본을 수차례 드나들었다. 1987년 무역부 부부장에 오르면서 본격적으로 업무에 뛰어든 그는 중국 주재 북한대사관 무역참사를 지내면서, 1992년에는 김달현 당시 대외경제위원장을 보좌하면서 남북 경협에도 발을 담갔다. 1992년 12월 대외경제위원장에 발탁되면서 최고인민회의 제6기 20차전원회의에서 노동당 중앙위원회 후보위원에도 오른 그는 무역 분야에서 공로를 인정받아 1995년 10월 북한 최고의 상훈인 '김일성훈장'을 받기도 했다.

70년대부터 당시 부총리였던 계응태(현 당중앙위원회 비서)의 총애를 받아 승진 가도를 달려왔다는 설도 있지만, 실무 능력도 상당한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 다만, 건강 문제가 향후 활동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대북 교역 업자들의 전언이다. 개방적 성향에다가 업무 처리가 뛰어나고 합리적이라는 평을 받으며, 무역성내 직원들 사이에서도 명망이 있다는 평가다.

민족경제협력연합회장 - 정운업

1941년 평남 회창에서 태어난 정운업은 김책공업종합대학에서 전기공학을 전공한 공학도이다. 1989년 무역부 국장에 올라 전자제품의 수출입 문제를 담당했던 그는 1991년에는 조선기계금속수출입공사 총재라는 직함으로 주로 아시아 국가들과의 교역에 주력했다. 이듬해 7월 삼천리총회사 총사장을 맡으면서 남북 경협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그는 당시 김달현 부총리를 수행해 서울을 방문한 적이 있으며, 1995년께 광명성경제연합회 산하 개선무역총회사 총사장이 됐다. 그해 12월부터 6 개월간 잠시 말레이시아 주재 북한 대사관 무역참사로 활동한 정운업은 작년 6월 대남 사업을 전담하는 조선아세아태평양평화위원회 산하 민족경제협력연합회 회장에 임명됐다. 그는 현대그룹 정주영 명예회장의 북한 방문 때마다 빠짐없이 판문점에 나와 영접함으로써 우리에게 그리 낯설지 않은 인물이며, 현대그룹의 금강산 관광 사업을 실현시킨 북측 파트너로 자리매김되고 있다.

이외에 그동안 북한의 대외 무역을 이끌어온 것으로 평가되는 김정우(57) 前대외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겸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위원장과 金文成(56) 前대외경제위 부위원장 겸 국제무역촉진위원장이 있으나, 각각 건강 악화와 외자 유치 부진 등의 이유로 지난해 9월을 전후해 실무에서 물러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일부 북한 전문가들은 이들의 그간 경력과 공적때문에 약점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호전될 경우에는 언제든지 무역 실무선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를 표명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김정우는 김일성종합대학교를 졸업하고 1975년 제2설비수입상사 과장을 시작으로 1979년 제1설비수입상사 사장, 1982년 대외경제사업부 부부장, 1992년 대외경제위 부위원장 겸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장을 각각 역임했으며, 이후 미국과의 경수로 협상 전문가대표단장과 남북고위급회담 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장을 지냈다.

김문성은 평양국제관계대학을 졸업하고 1981년 무역부에 들어와 1987년 대외경제사업부 부국장, 1988년 요르단 주재 북한대사관 상무관, 1990년 나미비아 주재 북한대사관 무역참사, 1997년 대외경제위 부위원장 겸 국제무역촉진위원장을 각각 역임하는 등 화려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조직 개편의 특징과 시사점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새로이 무역 부문에 등장한 북한 관료들은 대부분 몇가지의 특성을 갖는다.

첫째, 강정모 무역상과 김동명 무역부상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40년대 출생의 비교적 젊은 인물들이라는 점이다. 이같은 현상은

1998년 9월 내각이 구성될 때 전체적인 흐름이 실무적인 내각 편성에 주안점이 두어졌던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특히, 무역성의 '젊은 피' 수혈은 많은 실무 경력을 경험했다는 점에서 내실화를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들 대부분이 투자설명회나 기타 행사차 해외 각국을 돌아다니며 자본주의경제체제를 자주 접할 수 있는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나 국제무역촉진위원회 출신이라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둘째, 무역상 아래 6 명의 부상이 지역별 담당체계를 갖췄다는 점이다. 구본태 부상은 옛 사회주의권 국가들과의 교역을, 구성복 부상은 북한의 새로운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유럽 지역을, 김동명 부상은 유엔 산하 전문 기구들과의 협력 사업을 각각 담당하고 있다. 또한 김룡문 부상은 중국 및 동남아시아와의 교역을, 김봉익 부상은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과의 사업을 담당하고 있으며, 림태덕 부상은 재일 조총련과의 합영 · 합작 사업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다.

셋째, 무역성의 신진 관료들이 그동안 대남 경협에서 실무를 익혀온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 강정모 무역상과 김봉익 · 림태덕 · 김룡문 부상 등이 바로 그들인데, 결국 1988년 대북 경제 개방 조치 이후 남북 경협의 증가가 북한경제체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반영하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특성들이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을 추구하는 시스템 내에서 제대로 기능을 수행할지는 의문시되고 있다. 즉, 북한으로서는 자립 경제 건설이라는 정치적 목표와 변화하는 국제 환경에 적응하려는 경제적 목표라는, 어찌보면 상반되기까지 한 목표를 달성하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1998년 3월 「무역법」을 제정하는 등 무역 발전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왔고, 여기에 무역성의 조직을 젊은 관료 중심으로 또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무역 구조를 체계화하는 등 나름대로의 노력을 기울여나가고 있다.

궁극적으로 북한은 경제 개방이 몰고올 '사상적 와해'를 우려해 내부 단속에 주력하겠지만, 동시에 변화하는 주변 환경에 적응해 보다 체계적으로 대외 무역을 추진하려는 작업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체제 내부의 움직임을 고려하여 교역의 폭과 속도를 조정해나갈 것이나, 경제 회생에 절대적인 자본주의 국가와의 교역 확대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강조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統